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만어산에 부처의 그림자가 비친 까닭은?

인도와 한국불교의 점점 시사해 쥐

1. 인도불교와의 점점

인도불교와 한국불교와의 점점 고대로부터 적지 않게 있어 왔다. 하지만 그 점점이 아유타국의 허황옥 공주의 도래로부터 이루어져 왔다. 더불어 금강산의 16나한의 연기설화가 역사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인도불교에서 비롯되었을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어산불영' (魚山佛影) 조의 기록 역시 한국불교와 인도불교와의 점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고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전한다. "만어산은 옛날에 자성산(慈成山)이다. 또 '아야사산' (阿耶斯山)이라고 했는데 그 이웃에는 가라국(阿囉國)이 있었다. 옛날 하늘에서 알이 바닷가로 내려와 사람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으니 바로 수로왕이다. 이 당시 나라 안에는 옥지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독룡이 있었다. 만어산에는 다섯 나찰녀가 있어 독룡과 오가며 교접을 했다. 이 때문에 때때로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 4년 동안이나 모든 곡식이 익지 않았다. 왕이 주술로써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하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려 부처에게 설법을 청했다. 그 뒤에 나찰녀는 그녀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을 받고서 폐해가 없어졌다. 이 때문에 동해의 고기와 용이 들로 변하여 골짜기가 가득 차서 저마다 쇠북과 경쇠의 소리를 냈다." 『가락국기』와 '오가야' 조에는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늘어져 땅에까지 닿았는데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로 싼 금합이 있었다. 그것을 열어보니 태양처럼 둥근 황금빛의 알이 여섯 개가 들어 있었다"고 하였다.

여기의 만어산은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에 있는 해발 607미터의 산을 가리킨다. 그런데 만어산을 무대로 한 이야기는 가야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로까지 확장된다. 『가락국기』가 찬술된 것도 고려 중기 즈음이다. "대정 20년 경자(1180)는 바로 명종 11년이다. 이때 처음으로 만어사를 창건했다. 고위 승직인 동량(棟梁)의 직위에 있던 보림(寶林)이 임금께 산중의 기이한 사적에 관해 글을 올려 말씀드렸다. "북천축 가라국 부처의 그림자에 관한 일과 서로 맞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산 근처의 양주 땅의 옥지(玉池)에 역시 독룡(毒龍)이 살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때때로 강가에서 구름의 기운이 떠올라 산꼭대기에 닿으면 그 구름 속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 것이고, 셋째는 부처 그림자의 서북쪽에 반석이 있어 항상 물이 고여 마르지 않는데 이곳이 부처가 가사를 세탁한 곳이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보림의 이야기에 접한 일연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지금 와서 친히 예를 올리고 보니 역시 분명히 공경하고 믿을 만한 것이 두 가지이다. 골짜기의 돌중에서 거의 3분의 2는 모두 금과 옥소리가 나는 것이 그 하나이며, 바위의 부처 모습이 멀리서 바라보면 나타나고 가까이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다. 혹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그리고 일연은 북천축의 글을 모두 뒤에 싣고 있다.

2. 가야불교와의 통로

일연은 인도불교와 가야불교와의 점점을 깊이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三國遺事』(駕洛國記)에서 "수로왕 즉위 2

년에 정궁(正宮)을 정하기 위하여 가궁(假宮)의 남쪽 신탄평(新沓坪)에 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좌우 신하들에게 이곳이 아주 명당이니 십육나한(十六羅漢)이 머물만한 곳이다"라고 한 것과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산불영' (魚山佛影) 조에서 "독룡과 다섯 나찰녀(羅刹女)의 장난을 수로왕이 주술(呪術)로도 금치 못하고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청하여 설법한 뒤에야 나찰녀들이 오계(五戒)를 받아 후한이 없어졌다"고 적었다. 이러한 기록은 일연이 인도불교와 가야불교와의 통로를 열기 위해 북천축 가라국의 글을 실어둔 의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고려대장경』 '가자함' (可字函)의 『관불삼매경』 제7권을 인용하고 있다. "부처님이 야전가라국 고산산에 오셨다. 그곳은 악독한 용이 사는 탐복화 숲의 옆이며 청련화 섬의 북쪽이고, 나찰의 동굴이 있는 아야사산의 남쪽이다. 이때 그 동굴 안에는 다섯 나찰이 암컷용이 되어 독룡들과 사통하였다. 독룡은 때때로 우박을 내리고 나찰은 난폭한 행동을 하므로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았다. 이렇게 4년이 지나니 왕이 놀라고 두려워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며 제사를 올렸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때 총명하고 지혜가 많은 바라문이 대왕에게 말씀드렸다. "가비라국 정반왕의 왕자가 지금 도를 이루어 이름을 석가문(釋迦文)이라고 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여 부처가 계시는 곳을 향하여 예를 올리며 말하였다. "오늘날 불교가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 나라에는 이르

용왕의 칠보대에 들어간 부처 기록 전해

가야, 신라, 북천축 불연 이어 불국토 주장

신라의 안함·자장 불국토설 창안과 맥 닿아

지 않고 있습니까?" 이때 여래는 여러 비구에게 명령을 내려 육신통을 얻은 자에게 뒤를 따르게 하여 야전가라국의 왕인 불파부제(佛婆浮提)의 청을 받아 들었다.

이때 세존의 이마에서 광명이 솟아 나와 1만이나 되는 여러 천신과 화불을 만들어 그 나라로 갔다. 이때 용왕과 나찰녀는 오체부지하여 부처님께 계율 받기를 원하니 부처가 즉시 삼귀와 오계를 설법했다. 용왕이 다 듣고 무릎 꿇고 합장하여 석가부처님이 늘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청하면서 만일 부처가 여기 계시지 않으면 자기는 악한 마음이 있어 아복보리를 얻게 될 수 없노라고 했다. 이 때 범천왕이 다시 와서 부처에게 예를 드리며 청하였다. "석가모니께서는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야 하므로 편벽되게 이 작은 하나의 용만을 위해서는 안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범왕들이 모두 이같은 청을 하였다.

3. 불연의 깊이와 너비

이때 용왕이 칠보로 꾸민 대[七寶臺]를 내어 석가 여래에게 바치니 부처가 용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청을 받아들여 너의 동굴 속에서 1천 5백 년을 지내겠다." 그러고는 몸을 솟구쳐 돌 속으로 들어가



만어산 어산불영 모습. 동해의 고기와 용이 들로 변해 골짜기에 가득차 쇠북과 경의 소리를 냈다고 전해진다. 어산불영은 언저리에서 보면 부처의 그림자가 비친다 하여 붙여졌다.

니, 그 돌이 밝은 거울과 같았으므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며 여러 용들도 모두 부처의 모습을 보았다. 부처가 돌 속에 있으면서 밖으로 형상을 나타내니 여러 용들이 합장하면서 기뻐하여 그곳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었다.

이때 석가세존이 석벽 안에서 결과부좌를 하고 있었는데 중생들이 멀리서 보면 나타나고 가까이서 보면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 범천이 부처의 영상[佛影]에 공양하니 부처의 그림자가 역시 설법을 했다. 또 이르기를 '부처가 바위 위를 밟으니 문득 금과 옥소리가 났다'고 하였다. 『고승전』에는 이렇게 이르고 있다. "해원(慧遠)이 천축[佛影]에 부처의 그림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옛날에 용을 위하여 남겼던 그림자로서 북천축 월지국(月支國) 나갈가성(那竭阿城)의 남쪽 옛 선인의 석실 속에 있었다." 일연은 다시 범현의 『서역전』(불국기)의 기록을 덧붙이고 있다.

"나갈국의 경계에 있는 나갈성에서 남쪽으로 반유순되는 곳에 석실이 있다. 이곳은 박산(博山) 서남쪽에 있는데 그 석실 안에 부처가 영상을 남겼다. 10여 보 떨어진 곳에서 그것을 보면 부처의 참모습처럼 광명이 밝게 빛나지만 가까이질수록 희미하게 보였다. 여러 나라의 왕들이 그림 그리는 사람을 보

내어 그것을 본떠 그리려 했으나 비슷하게도 그리지 못했다. 나라 사람들이 전하기로는 현검 1천의 부처가 모두 여기에 마땅히 영상을 남겼다 하였다. 그 영상의 서쪽 백 보쯤에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 때 머리를 쥐고 손뼉을 자르던 곳이 있었다." 일연은 다시 성함(星函)의 『서역기』 제2을 덧붙여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옛날에 석가여래가 세상에 계실 때 용이 소를 기르는 목자[牧牛之士]가 되어 왕에게 우유를 바쳤다. (목자는) 우유 진상을 잘못하여 견책을 받으니 마음속으로 원한을 품고 돈을 주어 꽃을 사서 공양을 하면서 술도파에 수기(授記)하였다. '악독한 용이 되어 나라를 파멸시키고 왕을 해치게 해 주소서.' 곧바로 석벽으로 달려가 몸을 던져 죽었다. 그리하여 이 굴에 살면서 대용왕이 되어 마침내 악한 마음을 일으켰는데 여래가 이를 알고 신통력의 조화로 여기에 오게 되었다. 이 용이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니 악독한 마음이 그만 가라앉게 되어 생물을 죽이지 않겠다는 계율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여래에게 이 동굴에 항상 머물면서 늘 자기의 공양 받기를 청하니 부처가 말하였다. "나 는 장차 열반할 것인데 너를 위하여 나의 영상을 남길 터이니 만일 독하고 분한 마음이 생길 때 언제나 내 영상을 보면 독한 마음이 반드시 그치게 될 것이

다.' 그리고 부처는 정신을 가다듬고 홀로 석실을 들어가니 멀리서 보면 나타나고 가까이서 보면 나타나지 않았다. 또 돌의 발자취를 칠보로 삼았다." 일연은 '아야사산' 이 마땅히 '물고기'를 뜻하는 범어 '마타야'(Mataya)의 음가인 '아야사산'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할주(割註, 分註)로부터 시작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야와 인도 북천축 (야전)가라국으로까지 잇고 있다. 그는 '물고기'를 뜻하는 '마야사'를 통해 쌍어문의 출발지로 알려진 인도와 부처님 그림자의 재현을 통해 불연(佛緣)의 깊이와 너비를 확보하려고 헌신하였다. 이것은 마치 신라의 안함과 자장의 불국토설 창안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일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김영태, 『삼국유사의 불교신앙 연구』(신원문화사, 1975)
-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연구』(불광출판부, 2000).
-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해), (민족사, 2005; 2007).
-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한국학술정보), (2012)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ikukak.com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를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이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회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